

# 번역교육과 인문교육\*

전 성 기  
(고려대학교)

## ■ 차 례 ■

- I. 머리말
- II. 번역과 소통
- III. 번역과 문화
- IV. 번역과 인문적 사유
- V. 번역과 인문학
- VI. 번역과 논증교육
- VII. 맺음말

## I. 머리말

대학의 번역교육은 이제 다시금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번역교육이 학교 외국어 교육에 필요하다는 지적은 불어권에서는 적어도 80년대 초부터 있었다.<sup>1)</sup> 일찍이 라드미랄은 외국어교육에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외에 번역을 제5 기능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2)</sup>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한 호응은 여전히 미약하다. 정명진(1979)에서 박경일(2001, 2003), 박노철(2004)에 이르기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대학 외국어교

---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과제번호: KRF-2008-321-A00145).

1) Roth(1983) 참고.

2) Ladmira(1984:43); 유명우(2000)도 제5 기능으로서의 번역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육에서 번역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주장해왔으며, 김륜옥(2001:2)이 ‘학제간 협동 작업을 원칙으로 한 번역교육의 모델’을 제시한 바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어문학 전공들에서도 번역교육은 아직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3)</sup> 대개의 대학 외국어교육은 도구교육 차원에 머무를 뿐, 인문문화의 폭넓은 이해와 소통의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은 외국어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뿐더러, 이제는 번역이 외국어교육을 넘어 인문(학)교육의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대학에서 번역교육을 통한 인문(학)교육은 외국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번역의 ‘활용’이라는 하나의 연속체에서 우리는 아직 한쪽 부분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외국어의 심화학습과 인문교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인문학 위기론이 여전히 식자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고 있고, 고전의 연구번역이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폭넓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즈음, 우리 대학, 특히 외국어문학 전공에서의 번역교육은 인문학 텍스트 번역들의 검토 분석을 통한 인문교육과 연계지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크다. 우리 인문학의 대부분이 번역된 것이면서도 번역에 대한 성찰이 태부족인 실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은 ‘단편 제도로서의 인문학을 넘어 인문학의 새로운 열림을 도모’하는 새로운 하나의 ‘인문학적 기획’<sup>4)</sup>인 ‘번역인문학’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

## II. 번역과 소통

번역에 대해 전통적으로 인정해온 기능 중 첫째는 ‘소통’이라고 제마르(1990:247)는 지적한다.<sup>5)</sup> 번역은 다른 언어로 생각되고 쓰여진 인간의 저술들의 발견을 통해 과거 또는 현재의 문명이나 문화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것이다. 번역을 통한 소통은 다양한 방법과 양식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는 이들에 대한 논의들도 번역학에서 다양

3) 정혜용(2007) 참고.

4) 이광호(2006:455) 참고.

5) Ladmiral(1984:43)도 번역의 소통의 측면을 강조한다.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직역을 할 것인가 의역을 할 것인가도 실은 이 소통 양식에 관한 문제이다. 번역에 대한 생각은 언어에 대한 생각과 분리될 수 없다. 사실, 언어에 대한 이해가 언어로 된 텍스트 번역에 대한 생각을 크게 좌우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언어는 단순 소통의 도구가 아니고, 소통은 단순 전달이 아니라는 것이다. 텍스트에 쓰인 언어는 도구 이상의 것이고, 텍스트에서의 소통도 전달을 넘어선다. 한 텍스트에는 그 저자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것들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독자도 저자의 의도를 넘어 텍스트를 다양하게 읽어낼 수 있다. 소통은 일종의 만남이다. 만남에 피상적 만남과 속깊은 만남이 있듯이, 소통도 그러하다. 소통을 전달로 생각하는 것과 ‘(더 큰) 하나됨’이나 그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리콰르(2006)는 ‘번역 텍스트들이 번역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단어들이나 문장들이 아니라 원문 텍스트들’이라고 말한다. 그에 의하면, ‘번역가의 과제’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문장으로, 텍스트로, 문화 전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즉, ‘번역가는 폭넓은 읽기를 통해 한 문화의 정신에 깊이 침잠하면서 텍스트에서 문장으로 그리고 끝으로 단어 차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136-7). 그는 ‘등가’의 ‘진정한 본성’은 ‘추정’되기보다 ‘생산’되는 것이라 말한다(148). 번역의 위험이면서 동시에 위대함이란 바로 원문에 대한 ‘창조적 배반’이 발생하는 것이고, 수용언어를 통한 ‘창조적인 자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sup>6)</sup> 리콰르는 이를 ‘비교 가능한 것의 구성’이라고 말한다. 동일한 낱말이라도 맥락이 달라지면 그 의미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그 번역이 달라져야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번역에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이른바 ‘미등재 표현’을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잦아지는 것이다.<sup>7)</sup> 이중어사전에서 두 낱말이 ‘동일하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거나 착각이다.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유사하게 쓰일 수 있을 뿐이다.

번역이 소통이라면 번역교육은 소통교육이다. 이 소통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6) 윤성우(2006) 참고.

7) Delisle(1981:142)이 ‘해석이론’의 번역 방법으로, 나아가 번역의 핵심적 원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유추’analogie이다. 그는 이 유추에 의해 새로운 맥락적 등가표현의 창출된다고 말한다. 그는 ‘번역의 모든 등가치가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며, 텍스트 의미의 탐구와 재현은 유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번역에 대한 기초적 가정으로 내세운다.

구분된다. 하나는 학습자가 직접 번역하도록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의 번역에서 배우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번역교육은 이 두 가지 모두 활용할 수 있지만, 우선 후자를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교육자료는 문사철의 다양한 원텍스트들과 그 번역텍스트들로, 이들의 대조나 비교 검토 분석을 통해 다양한 소통의 측면들이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sup>8)</sup> 피교육자의 지식이나 언어능력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교육과 학습상 필요로 인해 적절히 어려운 것을 택할 필요가 있다. 텍스트의 이해에는 오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기에<sup>9)</sup> 텍스트를 읽을 때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다른 이해의 가능성에 마음을 열도록 교육자는 피교육자를 이끌어야 한다. 메즈리(2005:122)가 지적하듯, 번역이 온갖 종류의 부족이나 결핍을 관리하는 것이고, 전달되는 말이 변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소통의 일반 법칙들’에 속하는 것이라면, 손실이 보전이 필요하다. 즉 손실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리는 낱말 차원보다는 텍스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텍스트의 세부적 이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텍스트의 세부적 이해가 텍스트의 전체적 이해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sup>10)</sup>

바벨탑의 신화는 흔히 인류에 대한 하나의 저주로 해석된다. 그래서 시 언어의 경우이건 철학 언어의 경우이건, 이른바 ‘순수 언어’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저주의 극복의 노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스티노프(2007:24)는 언어들의 다양성을 바벨탑 신화의 성급한 해석처럼 저주가 아니라 서로 풍요로워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새롭게 해석한다.<sup>11)</sup> 우리는 이러한 긍정적 해석에 공감한다. 언어들의 차이와 다양성을 서로가 풍요로워지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과 탐구를 인문(학)적 소통의 노력과 탐구로 보는 것이다. 인문학 텍스트의 번역과 비평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간헐적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속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양자가 엄밀히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전자가 일반적 탐구번역과 탐구비평에 속한다면, 후자는 연구번역과 연구비평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는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 인문

8) 대조나 비교는 흔히 랑그상의 작업으로 간주되나 본고에서는 텍스트상의 작업을 의미한다.

9) 오죽하면 이해는 오해의 한 특별한 경우라는 말까지 있겠는가.

10) 문학작품의 경우, 전자가 번역문법적인 이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후자는 작품상의 이해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 사이에 해석적 순환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Ost(2006)도 유사한 의견을 피력한다.

학 텍스트도 미적 문학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텍스트, 개념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텍스트, 기술적 *technique* 성격이 두드러지는 텍스트 등 그 성격이 다양하고 또 대개는 이들이 혼재해 있으나, 타언어 타문화에 대한 배려 · 존중 · 경청과 탐구의 노력 없이 번역을 통한 깊은 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도 리쾨르(2006)가 말하는 ‘언어적 환대’는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에나프(2006:76)는 이 ‘환대’가 ‘동일성 없는 등가’라는 번역의 성격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타성의 윤리’에 의한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반김 혹은 배려로 인해 이국성도 접근 가능해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sup>12)</sup>

양세(1999:181)는 모든 번역이 반역임을 개탄하기보다, 번역이 반역임을 당당히 내세우라고 조언한다. 그에 의하면 번역은 ‘이중반역’이다. 그것은 번역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언어, 두 ‘목소리’가 이 관계로 의해 서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을 그는 이중반역으로 묘사한다. 번역은 원어의 사라짐으로 인해 원어에 대한 반역이고, 번역어에서 ‘이타성’의 낯선 목소리를 듣기 되기에 번역어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중반역’을 통해 원텍스트의 깊은 의미를 읽어 내어 자신의 언어, 자신의 모국어에 깊이를 더하고, 그 소진 불가능한 잠재력을 일깨운다면, 이는 진정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번역은 ‘의미의 등가’ 뿐 아니라 형태나 형식, 리듬 등 이른바 ‘시니피앙스의 등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기옥학과 학자들은 ‘언어에서 표층보다 더 심층적인 것은 없다’고 역설한다. 볼 수 있는 자에게 표층은 심층적인 것의 ‘번역’ 그 자체라는 것이다.<sup>13)</sup> 적지 않은 번역학자들이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많은 인문학 텍스트가 일종의 ‘덧쓰기’ *palimpseste*처럼 이루어진 것이고, 이들에게 맥락과 상호텍스트성이 중요한 것이라면, 읽기교육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2) Hénaff(2006:77): “L'accueil de l'étranger, explique encore Ricœur, nous donne accès à son étrangeté même et ainsi elle nous révèle à nous-mêmes la nôtre.”

13) Molho/Launay/Chevalier(1986:96): “il n'y a rien de plus profond dans un langage que sa surface: pour qui sait la regarder, elle est la traduction même de ce qu'il est en profondeur.”

### III. 번역과 문화

발리위(2001:155)는 한 언어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빙산의 일각에 비유한다. 일반의미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언어’와 ‘문화’가 별개의 낱말이라 해서 그 대상들이 현상적으로도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sup>14)</sup> 언어와 문화는 거의 불가분이라고 할 만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15)</sup> 문화는 ‘번역불가능’이라는 말을 우리는 때로 듣는다. 낱말이나 표현에서 문화적 측면이 강할수록 번역이 그만큼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문화상관어’ 혹은 ‘문화어’들의 경우, 최소번역의 경우라 할 수 있는 ‘차용’이 흔히 사용된다. 한국어 형성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다양한 유래의 ‘한자어’들도 차용의 경우라면 문화의 번역에서 차용의 역할은 결코 미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차용이 문화번역의 능사는 물론 아니다. 다양한 다른 가능성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카생(1998:1114)은 ‘번역불가능한 것들’을 번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때로 신조어나 기존어에 새로운 의미 부여가 필요하기도 한 것들, 낱말들이나 그 개념망들이 충첩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의미의 ‘번역불가능한 것들’은 인문학번역의 훌륭한 탐구 소재들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은 문화번역이 이른바 ‘문화어’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어의 ‘maison’, ‘montagne’ 같은 일상어가 한국어로는 ‘집’, ‘산’ 등으로 불한사전에 올라 있지만, 그 시니피에는 물론 지시물도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외국어를 잘 하려면 원어사전을 보라고 흔히 조언하지만, 번역에서는 이중어사전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 하지만 그 도움이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데에 우리는 깊이 유의해야 한다. 번역어를 통해 번역자, 특히 미숙한 번역자가 사전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원천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달문화에 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maison’을 ‘집’으로, ‘montagne’를 ‘산’으로 옮긴다고 해도 이들과 다른 유사 표현들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정확한 외연적 이해가 어렵다. ‘영혼’, ‘자유’로 번역되는 ‘âme’, ‘liberté’ 같은 추상어들은 외연적 이해도 어려울 뿐더러 설명 가능하다고 해도

14) ‘몸’과 ‘마음’도 별도의 낱말이기에 우리는 흔히 이들을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대개 받아들이나, 실상은 이와 사뭇 다른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다.

15) ‘langue-culture’, ‘languaculture’ 같은 표현들도 그래서 고안된 것이다.

그 번역이 마땅치 않은 경우들이 허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어진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다면 정확한 이해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 해당 내용은 물론, 유사 표현들, 맥락이나 상황에 고려가 충분치 못하면 문화의 차이는 이해보다 오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16)</sup> 이해는 해석학에서 말하는 선입견, 선입관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만큼, 타언어 타문화를 이해하려고 할 때 상대의 입장에 대해 ‘공감적’ 이해, 역지사지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는 인문교육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어휘 뿐 아니라 문법도 언어-문화의 한 현상이다. 우리는 불문법서들에서 예를 들어 ‘Je suis étudiante’가 ‘나는 여학생이다’로, ‘Il mange du pain’이 ‘그는 약간의 빵을 먹는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본다. 이는 ‘대명사’와 ‘문법 성’, ‘부분관사’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못하거나 잘못된 결과이다. 문법도 중요한 의미 문제이고 따라서 번역상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탈맥락적 탈상황적이라는 문법 예문들은 상황이나 맥락을 인위적으로라도 부여하지 않으면 번역이 되지 않는다. 위의 번역들이 ‘랑그’의 번역이라는 것은 큰 착각이다.<sup>17)</sup> 이들은 ‘중간번역’ 내지는 오역일 뿐이다. 하지만 위의 예들에 ‘Qu'est-ce que vous faites (dans la vie)?’, ‘Qu'est-ce qu'il fait?’ 등의 맥락이 부여되면 이들은 ‘학생이에요’, ‘빵 먹(고 있)어요’ 정도로 쉽게 번역된다. 이들은 우리가 외국어의 문법교육에서 의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의식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아주 작은 예들에 지나지 않는다. ‘번역불가능한 것들’을 다루는 것은 번역의 난점들을 다루는 것이고 언어들간의 차이의 주요 징후들을 다루는 것이라는 카생 등(2006)

16) Ost(2006): “À la suite de Von Humboldt, il faut noter en effet que le «cheval» français n'évoquera jamais exactement la même chose que le horse anglais, l'équus latin ou le hippos grec. Entre eux, point non plus d'étalon (c'est le cas de le dire) de mesure commune qui résumerait l'idée de cheval tel qu'en lui-même. Et si cela est déjà vrai au modeste plan du découpage sémantique, sans même s'élever aux singularités grammaticales (le découpage des temps verbaux, par exemple, si variable d'une langue à l'autre), pas plus qu'aux très diverses manières (rhéoriques notamment) d'associer le signifié au référent qu'il vise, alors on comprend qu'il est préférable de renoncer tout de suite aux ambitions d'une langue universelle et rationnelle qui serait le transcendantal de toutes les autres.”

17) 랑그는 소쉬르가 강조한 ‘가치value’의 문제로 인해 엄밀한 의미에서는 번역이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의 말은 문법의 경우들에도 유효하다. 가시적인 문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번역문법’적 고찰의 영역이다. 이러한 차이들에 대한 고찰들은 원어의 섬세한 이해 뿐 아니라 역어를 풍요롭게 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언어를 잘 알면 어디서나 편안하지만, 하나의 언어를 아주 잘 알면 어디서도 편안치가 않다’는 발리위(2004)의 말은 번역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sup>18)</sup>

사전과 문법서는 번역의 참고자료이지 번역의 ‘법전’이 아니다. 참고와 근거는 분명히 다르고 또 구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는 오용과 오역의 이유나 근거가 될 뿐이다. 외국어교육과 번역교육에서 상황과 맥락에 대한 고려와 성찰은 실로 크게 중요하다. 이 중요성을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여겨온 것이다. 원칙적으로 사전과 문법서의 번역예들은 랑그가 아니라 담론이나 텍스트상의 것들이다. 과학사가 홍성욱(2000:223)은 ‘대학에서의 인문학 교육은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읽고,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잘 만들 줄 아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 말한다. ‘그저 텍스트의 내용을 주입하거나 교전을 ‘성현의 말씀’과 같은 식으로 절대화하는 교육은 학생들의 교육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사전과 문법서라는 텍스트들의 읽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전과 문법서도 반성적 비판적 성찰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적절한 참고와 활용이 가능하다. 별로 어렵지 않은 인문학 텍스트라 해도 이중어사전 번역예들의 참고로 충분한 경우는 많지 않다. 번역이나 그 비평을 위해서는 해당 내용과 관련 내용은 물론, 맥락이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읽기와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이는 번역 과정에서 읽기-이해 과정에 이어 이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번역비평과 번역글쓰기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개의 번역학 이론들은 번역자가 원천 언어-문화와 도달 언어-문화를 모두 잘 아는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우리 대학 현장의 실상은 이와 거리가 아주 멀다. 대상 텍스트와 그와 관련된 지식들이 충분치 못해 발생하는 문제 못지않게, 원천 언어-문화와 도달 언어-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번역이 오역으로 점철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와 더불어 번역학 지식의 태부족도 작지 않은 문제이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인해 발생하는 오역도 나쁘기만 한 것은 아

18) Balliu(2004:57): "quant on connaît bien une langue, on se sent à l'aise partout; quand on connaît très bien une langue, on ne se sent à l'aise nul part."



니다. 병의 이해가 건강의 이해에 주요 자료가 되듯이, 오역도 적절한 번역이나 좋은 번역으로 나아가는 주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좀체 발견되지 않는다. 대개는 비난이나 힐난의 재료가 될 뿐이다. 사전과 문법서라는 참고서들도 적어도 번역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부실하거나 부적절해서 번역에 대해 섬세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원텍스트의 섬세한 글읽기와 적절한 번역글쓰기의 기본이 문법, 나아가 번역문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대학의 번역교육은 인문학 텍스트를 통한 번역교육을 위해, 사전과 문법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이해교육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

#### IV. 번역과 인문적 사유

홍성욱(2003:91-2)은 ‘인문학적 사유’를 ‘꿈꾸는 듯한 상상력이나 뜬구름 잡는 듯한 선문답이 아니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치밀하고도 분석적인 정신 노동이며, 이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발’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읽고, 이를 컨텍스트 속에 위치시켜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고, 이를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텍스트와 비교하거나 연결해’ 보는 것,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설명할 자신의 가설이나 주장을 생각해 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 보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제기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비슷한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 보고, 또 이것을 글로 엮어 보고, 그 글을 고치고, 보충 자료를 읽어 첨가하고, 다시 고치고, 이를 위해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의 습득과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고차원적인 인문학적 사유를 위해 우리가 몸으로 익혀두어야 할 습관들’이라고 그는 설명하는데, 이들은 바로 인문학 텍스트 읽기와 이해가 인문(학)적으로 되기 위해, 인문학 텍스트 번역이 인문(학)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다. 저자는 ‘대학의 인문학 교육은 이러한 습관을 학생들이 체득하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이는 도구 차원의 외국어교육을 넘어 인문(학)적 사유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인문학 텍스트의 번역교육이 깊이 귀담아 들어야 할 조언이다.

홍성욱은 이전의 글에서, ‘인문학의 방법론은 텍스트를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

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는 자연과학의 방법에 비해 더 보편적이고 비판적이며 반성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19)</sup> 이러한 '비판성', '반성성', 그리고 '성찰성'은 인문(학) 작업의 주요 특징들로,<sup>20)</sup> 인문학 텍스트들의 번역교육에서도 크게 유념해야 할 것들이다. 텍스트—구성요소들의—의미를 사전과 문법서에서 '짐 찾듯이' 찾아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은가<sup>21)</sup>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즈음, 위의 지적들은 인문학 텍스트 읽기와 번역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번역교육의 자료가 인문학 텍스트일 경우, 번역교육은 인문교육에 다름 아니다.<sup>22)</sup> 번역은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작업이 아니다. 주관성이 개입되기 마련이고, 그러하기에 주관상호성의 구축에 부단히 힘을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다. 이 구축과정은 일종의 논증과정이다. 인문학번역은 너비와 깊이에 차이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읽기와 해석, 번역비평과 번역글쓰기 모두가 반성적 비판적 성찰적 작업이 되어야 하는 만큼, 매우 인문적인 작업이다. 인문학번역의 교육이나 번역비평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폭넓고 깊이 있는 공감적 성찰적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어의 심도 있는 학습이 모국어의 보다 깊은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도 번역교육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사항이다.<sup>23)</sup>

리(2005:427)는, 일반의미론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무언가 말하기는 쉽지만 말해진 것의 제한적 부분적 성격을 의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중요한 지적을 한다. 언어 층위는 침묵 층위의 대상·행위·경험들의 총만함으로부터 약간의 세부적인 것들만 추출하여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상 의식'은 우리가 말할 때 말을 멈추고 침묵 층위에 주의를 기울일 때 보다 용이해지나, 그

19) 홍성욱(1997:382-3).

20) 손도현(2006:212-3)은 주관연관성, 가치지향성, 반성성을 인문학의 세 가지 특성으로 들고 있다.

21) 흔히 번역을 '옮김'으로 '역자'를 '옮긴이'로 쓰는데, 이러한 표현들도 혹 그러한 경향에 한몫을 하는지 모른다.

22) 번역교육은 번역학 담론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

23) Ost(2006:42): "Que la traduction bénéficie à son milieu d'accueil se vérifie dans l'expérience dont chacun a pu bénéficier selon laquelle l'apprentissage d'une seconde langue contribue à mieux maîtriser la première; comme si la prise de conscience de la multiplicité et de la relativité des façons de dire aidait à saisir la spécificité de la sienne propre."

러한 습관의 체득은 매우 어렵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가 말하는 침묵은 외적인 것 뿐 아니라 내적인 것도 의미한다. ‘침묵은 관찰에 기회를 제공’하고, 침묵의 습관은 말하기 전에 관찰할 시간을 준다. 관찰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과학, 기술 등으로 아는 것들의 창조적 근원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sup>24)</sup> 이러한 일반의미론적 사고는 불교에서 비롯되어 현재 심리학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되고 있는 ‘사띠’(혹은 ‘온마음’)<sup>25)</sup>와도 연계된다. 이 ‘온마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반의미론학자 데이비스(1997)가 말하는 ‘지연’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급히 판단내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 관찰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연을 통한 관찰과 성찰은 인문학 텍스트의 번역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물론 초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관찰도 실천이 거듭됨에 따라 적지 않은 부분이 거의 무의식적 혹은 직관적 판단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

라드미랄(2005)은 ‘다소간 어려운 텍스트들’을<sup>26)</sup> 대상으로 한, 이른바 ‘기본교육’*formation fondamentale*으로서의 철학번역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 ‘기본교육’은 ‘일반적 생성적 교육’으로서, ‘배우기를 배우는 것’이다(97). 저자는 이 ‘기본교육’이 ‘행동주의와 기술주의’ 모델과 대립되는 ‘인본적 비판적’ 모델에 의거한 것이라 말한다(104). 철학번역이라는 특수번역에서 ‘기본교육’은 일종의 ‘우회’처럼 보일 수 있으나, 라드미랄은 그의 번역교육의 핵심 원리의 하나로 강조한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하는 것’을 일종의 ‘투자’로 본다. 일반교양이 부족한 오늘날의 대학생들이 모국어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도 이 ‘기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드미랄(2007:23)은 ‘지식의 학문’이라기보다 ‘성찰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번역학이 이 ‘기본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sup>27)</sup> 철학번역을 포함한 인문학번역은 대개 ‘주의’를 집중한 시간

24) Lee(2005:427): "Silence gives opportunity for observations. There is time to see what there is to be seen. Arguments, debates, conflicts are quickly generated when the objects, situations, people are known only in part but though and talked about otherwise. The habit of silence gives one time to look first before speaking. And what looking is, after all, the creative source of what we know as science, art, technology, etc."

25) 영어로는 ‘mindfulness’, 불어로는 ‘pleine conscience’이다.

26) Ladmiral(2007:138) 참고.

27) 더 나아가, 번역학이나 번역인문학이 ‘앎 중심’의 학문에서 ‘삶 중심’의 학문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장희익(2007) 참고.

투자가 필요하다.<sup>28)</sup> 이른바 고전이나 어려운 텍스트들의 번역이 전문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지는 일이 빈번한 것은 이 투자의 필요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인문학에 대해, ‘번역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직도 우리 학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자생적인 인문학 발전에 기본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진단을 하는 정준영(2001:61)은 ‘번역 작업이 다른 전통들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통 간의 충돌과 승화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서양 고전 번역 자체가 인문학적 탐구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인문학의 번역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사유를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완재(1998:7)가 선인들의 공부 방법으로 소개한 침잠완색(沈潛玩索)과 적구점숙(積久漸熟), 즉 ‘꼭 잡겨 즐겁게 탐색한다’와 ‘오래 쌓아 점차 익어가게 한다’는 인문적 사유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번역교육을 통한 인문 교육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준영(2001:63)은 ‘동서양 고전의 연구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한국 인문학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는 인문학번역을 인문(학)적으로 사유하기를 적극 권하는 ‘번역인문학’이 지향하는 것이기도 한다.<sup>29)</sup> 번역이 창의적 번역글쓰기를 통해 자국어어를 풍요롭게 하듯이, 인문학의 창의적 번역은 우리 인문학을 새롭게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인문학번역이 단순 번역이 아니라 번역인문학의 차원에서 새롭게 성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은 인문학의 ‘번역적 전환’으로 이어져 우리 나름의 인문학 전통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V. 번역과 인문학

인문학은 전통적으로 이른바 ‘문사철’을 말하나, 인문학번역을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기에 ‘문화’를 포함하여 근대에 ‘문사철’에서 발전해나간 영역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sup>30)</sup>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 위기론이 우리 사회의 하

28) Rochlitz(2001:71) 참고.

29) 전호근/김시천(2010:278): “다시 말하지만 번역은 의미의 옮김이라기보다 차라리 우리의 삶의 미래로 통하는, 그래서 과거와 만나는 것, ‘고전에 우리 미래의 삶의 의미를 새기는 작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의 주요 답론으로 대두된 이래 다양한 원인들과 처방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인문학이 과학을 지향한 나머지 인문학에서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이 결핍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향기’, ‘무늬’, ‘가치’ 등에 대한 성찰이 결여되게 되었다는 진단이 특히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 학문(學問)은 미지의 것에 대해 묻고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sup>31)</sup> 이미 아는 것, 혹은 안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되묻고 새로이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선적인 것은 단연 묻는 것이다. 그간 ‘모든 지식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고, 확실한 근거와 토대가 명확해야 하며, 실질적 연관관계 속에서 입증되어야 한다’는<sup>32)</sup> 과학적 실증적 방법론으로 인해 물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어 왔다. 인문학이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문학’이고,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적 연찬’이라면,<sup>33)</sup> 그 주체인 인간에 대한 고려와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구교육에 치우친 대학의 외국어 교육이나 번역교육은 깊이 있는 인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에 원천 혹은 도달 언어-문화에 대한 성찰이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려깊은 이해와 불가분하다는 사실에 눈돌릴 겨를이 없었다. 인문학의 번역교육을 통한 인문교육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현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번역학이 인문학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번역학과 인문학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해도, 전자가 후자의 한 분야 혹은 학제적 한 분야인 것은 대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번역 자체의 인문(학)적 성격은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한 듯하다. 다행히 근자에 인문학번역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있고,<sup>34)</sup> 특히 라드미랄은 여러 글에서 번역의 철학적 성격에 대해 다양한 성찰을 해놓아 귀중한 참고가 된다.<sup>35)</sup> 그는 ‘의미’의 문제가 제기되어 있기에 번역은 그 자체가 철학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sup>36)</sup>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문사철이 중심이 되는 인문학 텍스트의 번

30) 그러할 경우, 언어로 표현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지리학, 인류학 등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 분야들의 대부분이 인문학의 영역에 자리하게 된다; 한상근 외(2002:9) 참고.

31) 고영섭(2007:1).

32) 손도현(2006:214).

33) 고영섭(2007:1), 고영섭(2009:1) 참고.

34) Rochelitz(2001), Poncharal(2007), Constantinescu(2009) 참고.

35) Ladmiral(2004, 2005) 참고.

역은 그 자체가 인문(학)적 작업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별난 일이 아니다. 읽기-이해와 번역비평-번역글쓰기의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번역과정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sup>37)</sup> 번역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성적 비판적 성찰적으로 되는 것이고, 이는 곧 인문적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번역과정은 ‘탐구로서의 번역’, 줄여 말해 ‘탐구번역’이 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번역을 문제해결의 탐구과정으로 보아 그에 필요한 반성적 비판적 성찰적 작업을 텍스트 차원에서 관련 지식들을 고려하며 어휘·문법·문화 등에 대해 수행하는 것이다.<sup>38)</sup> 이와 유사한 작업을 번역비평의 경우에 수행한다면, ‘탐구비평’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피교육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기존 번역서들과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원텍스트와의 비교작업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문학의 주축의 하나인 문학을 김치수는 ‘삶에 대한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다원주의적 가치와, 개개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자유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문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키워주는 것’이라 풀이한다.<sup>39)</sup> 이 풀이는 인문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적으로 보아도 잘못된 아닐 것이다. 다원주의적 가치, 인문주의적 가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인문학적 사유’<sup>40)</sup>에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벨(2000:15)은 ‘일반적으로 해석학은 하나의 좋은 답이 있다는 것,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학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해결방식을 존중하는 수사학적 사유가 인문학 연구에서 점차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수사학적 전환’을 말하며 20세기를 ‘수사학의 세기’로 규정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옥동(2002:29)도 20세기 전반을 ‘논리의 시대’로, 20세기 후반을 ‘수사학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문적 사유에서 수사(학)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36) Ladmiral(2009:51).

37) 전성기(2009a) 참고.

38) 전성기(2009b) 참고.

39) 이광호(2006:442)에서 재인용.

40) 이광호(2006:450).

상상력은 문학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학문적 담론에서도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메이에르에 이어, ‘언어를 제기된 물음들과 그에 대한 답들로 무한히 얹혀 있는 것’으로 보는 로비타이유(2005)는 ‘질문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질문 윤리’의 핵심은 ‘상상 게임’이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을 경청할 가치가 있는 가능한 하나의 해석으로 보고, 상대의 입장에 서는 ‘상상 게임’을 부단히 하는 것이다.<sup>41)</sup> ‘역지사지’나 ‘공감적 이해’란 말을 우리가 익히 알지만 그 실천은 쉽지 않다. 대개의 인문학 텍스트는 실용적 텍스트들과 달리 쉽게 잘 읽히지 않는다. 쉽게 읽힌다고 생각한 텍스트도 다시 보면 달리 생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물며 좀체로 잘 읽히지 않는 난해한 텍스트들은 말해 무엇하랴. 고전이 부단히 재번역되고 있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실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실 고전의 정의 중 하나가 ‘부단히 새롭게 해석되는 텍스트’가 아닌가.

전호근/김시천(2010:16-8)은 번역을 ‘한 사회의 지적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며 자기 정체성을 질문하는 계기이자 지식 전반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반’이라고 평가한다. ‘학문의 자생력과 자주성을 기르기 위해 원전 텍스트를 우리 언어로 옮겨놓는 일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문 현장에서 번역을 경시하는 것은 지적 사대주의나 원전 숭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번역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데 있다’고 그는 진단한다. ‘만족스럽지 않은 번역은 원전 텍스트의 함의를 전달하는 본래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번역의 또 다른 기능인 창조적 사유를 방해하거나 왜곡한다’는 것이 그의 중요한 관찰이다. 이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번역물이 만연하게 된 근본 원인은 번역 산물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데 인색했’기 때문이기에 ‘더 늦기 전에 번역 산물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 인문학번역의 평가가 품위있는 대화적인 본격적 비평으로 격상되고, 이와 아울러 ‘탐구번역’이 폭넓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번역문화가 개선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sup>42)</sup>

41) 전성기(2008) 4장 에필로그 참고.

42) 전성기(2009b) 참고.

## VI. 번역과 논증교육

인문학 텍스트의 번역은 인문(학)적 작업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어도 인문학 텍스트 원본과 번역본의 대조와 비교를 통한 번역교육은 번역에 대해 탐구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구과정을 통해 인문학 텍스트들에 대한 인문적 사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번역을 탐구한다는 것은 번역과 아울러 번역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부단히 묻고 답하며 번역에 대해 반성적 비판적 성찰적으로 되는 것이다. 번역교육을 위해서는 번역학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이론이 매우 다양하기에 다양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발라르(2007:22)는 번역학의 각 이론이 번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무언가 보탬이 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통로를 통해 보도록 하면 일그러진 프리즘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데,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sup>43)</sup> 어떠한 번역이론의 도움을 받던 번역에 대해 반성적 비판적 성찰적으로 인문적 사유를 하는 것은 사실은 논증적 사유를 하는 것이고, 이는 곧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사학적 사유를 하는 것이다.

메이에르(1993:13)는 수사를 ‘힘에 반하는 담론’의 선택으로, 불확실한 그럴 법한 개연적 상황에서, 결정의 합리적 절차의 문제로 간주한다. 그는 수사를 ‘주어진 문제(로고스)에 대한 주체들(에토스-파토스) 간의 거리 협상’으로 정의한다.<sup>44)</sup> 이 정의에 의하면, 번역자가 자신의 번역에서 수행하는 문제해결이나 번역학자가 다양한 번역이론들에 대하여 하는 문제해결이나 모두 수사(학)적 작업이다. 번역 비평자의 번역비평 작업에서도 역시 거리 혹은 차이의 교섭이 부단히 이루어진다. 선택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지 검증은 논증과정이다. 제문론에 의하면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답관계이고, 이는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텍스트는 저자에 의해 텍스트 차원에서 낱말 차원까지 문답관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마감된 상태이지만, 번역에서는 이 모든 관계들이 다시 혹은 반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논증은 사람들이 나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이를 좁히려는 것이 목표이기에 논증은 메이에르에게 수사의 일부분이다.<sup>45)</sup>

43) Ballard(2007:21)는 번역의 성찰에서 관점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의 이유로 ‘이론가의 주관성’, ‘이론화의 근본 토양’, ‘성찰에 사용된 개념적 도구들’을 든다.

44) Meyer(2005:42).

45) Meyer(1996:16-17) 참고.



근자에 수사학은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들에서 괄목할 만한 위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수사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창조적으로 재생했다고 평가받는 페렐만의 신수사학,<sup>46)</sup> 이 신수사학을 나름대로 ‘계승한’ 메이에르의 ‘제문론적 수사학’과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학’, 인문학 담론들을 위시한 다양한 학문 공동체들의 탐구방법들에 대한 연구인 ‘탐구의 수사학’<sup>47)</sup>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 경향들이 있다. 필연성·단일성을 지향하는 논리학과 달리 이들은 모두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들 수사학에서 말하는 논증은 학문적 담론들이나 일상 담론들 뿐 아니라 번역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듀리외(2009)가 말하는 ‘제한적 합리성의 원리’와도 통한다.<sup>48)</sup> 논증을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크로스화이트(2001)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언은 논증의 여지도 없다고 단언한다(253). 그는 ‘논증 행위의 존재 이유’는 ‘갈등 해결’이라고 말하는데(255), 이는 달리 말하면 문제 해결이다. 번역은 부단한 문제 해결 과정에 다른 아닌데, 이 과정의 타당성 검증은 바로 논증과정이다.

논증은 하나의 ‘의사소통 과정’이다.<sup>49)</sup> 번역에서는 이 소통이 저자와 역자 뿐 아니라 역자 자신의 다양한 가정 혹은 생각들과 소통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통에서는 번역 독자들과의 소통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아인혼(2006)은 자신과 공감적 소통을 이룰 수 있으면 남들과 공감적 소통을 이루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 말하는데, 이는 번역과 번역비평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크로스화이트(2001: 54)는 ‘논증 행위는 많은 종류의 깊은 동의에 기초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어떤 논증에서 ‘참여자’와 이러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거나 그들이 작용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논증으로서 논증을 경험할 수 없다’고

46) 마넬리(2006:226).

47) ‘탐구의 수사학’은 방법론의 문제를 다양한 문맥이나 상황 속에서의 구체적인 탐구 활동, 특히 엄밀한 의미에서 증명을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탐구 활동 안에서의 언어 문제와 결부시킨다.

48) Durieux(2009:362-3): "Dès lors qu'on s'intéresse au fonctionnement de l'esprit humain, il y a lieu de faire intervenir le principe de rationalité limitée, et ce sera la troisième rupture épistémique. En effet, certes la traduction est une succession de prises de décisions, mais ces décisions ne sont pas le résultat d'un processus purement rationnel faisant appel à un raisonnement fondé sur des règles d'inférence rigoureuses."

49) 크로스화이트(2003:53-4).

그는 단언한다. 이는 번역의 전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번역의 타당성 검증과정은 ‘특정 청중’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 청중’을 지향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드미랄(2000:54)은 낱말의 각 사용 경우들이 모두 특별한 번역의 문제라고까지 말한다. 이러한 번역의 문제성은 실용번역이나 기술번역 등에 비해 인문학번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두드러진다. 오늘날 인문학번역의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번역자가 번역에 대해 그다지 의식적이지 못하여 번역을 별로 문제적이지거나 문제제기적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온 데 있는 것이라 짐작된다.

번역에 대해 논증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메이랜드(1989)가 제시한 ‘설득을 위한 논증’과 ‘탐구를 위한 논증’의 구분이다. 이를 발전시킨 크로스하이트(2001:327)는 ‘어떤 쟁점에 관하여 이미 마음을 정해 놓고 단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의 추론과, ‘우리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려 애쓸 때 진행되는 종류의 추론’을 구분한다. 이러한 추론의 구분은 곧 논증의 구분이다. 크로스하이트는 논증이 탐구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교육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그는, 과학교육의 경우, ‘특정 청중’으로서의 학생들과 ‘유능한 과학적 청중’으로서의 학생들 사이의 ‘차이를 점차 줄이고 화해시키는 것’이 교육의 중심 목표 중 하나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번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저자는 ‘물리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추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낯선 시각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329), 번역의 학습자도 번역학자들이 하는 식으로 추론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일종의 논증과정인, 읽기-이해와 번역비평-번역글쓰기의 부단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번역과정에서 번역학적 성찰들이 잘 활용된다면 그 논증들이 훨씬 정교하고 정밀해질 것이다.<sup>50)</sup> 윈(2009)은 읽기·쓰기를 아우르는 논증 능력이 21세기 인문문화 구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읽기와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번역교육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인문교육 formation humaniste<sup>51)</sup>의 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2)</sup>

50) 이 과정에서 Langsdorf(1997)가 말하는 ‘thick argumentation’, Hermans(2003)이 말하는 ‘thick translation’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51) Huynh(2009:53)은 글쓰기와 더불어 논증 능력을 인문교육 formation humaniste의 구성 요소로 여긴다.

52) Hoggard/Kratz(2008)는 번역을 문학과 인문학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VII. 맺음말

이승환(2007:40)은 ‘동양의 지적 전통을 관류하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으로 ‘인간의 존재의의를 드러내고 인간을 한 차원 높은 존재로 고양시키려는 줄기찬 노력’을 꼽는다. 이러한 ‘정신사적 지향’이 ‘인문정신’이라는 것인데,<sup>53)</sup> 이러한 인문정신은 고전들을 비롯한 훌륭한 인문학 텍스트들에 아로새겨져 있다. 이러한 텍스트들의 번역이나 비평도 그러한 정신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인 인문학 텍스트들의 번역교육도 인문정신을 살리고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문적 사유는 그 대상이 거창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인문문화에 대한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실은 훌륭한 인문적 성찰의 대상이 된다. 어휘 하나, 문법 사항 하나에 대한 번역적 성찰이 인문적 성찰로 이어지는 것이다. 베르만(1984)은 번역학을 번역 경험들에 대한 성찰로 규정하는데,<sup>54)</sup> 이는 그의 번역학적 성찰의 주요 대상이었던 ‘작품 *œuvre*’ 뿐 아니라 일견 사소해 보이는 사전과 문법서의 예문 번역에도 적용된다. 번역의 ‘기본교육적’ 측면은 인문학 텍스트들의 번역교육에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sup>55)</sup> 외국어교육은 외국어를 정보 전달의 도구나 수단으로 삼는 차원을 넘어 인문문화의 깊이 있는 이해와 소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번역은 주어진 제약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지나치게 제약을 의식하면 번역어가 왜곡되나, 제약들을 의식하지 못하면 원어가 왜곡될 뿐 아니라 적절한 번역도 어렵다. 번역은 제약과 자유 속에서의 ‘미묘한 줄타기’이다. 번역 기획과 선택에 따라서는 원어에 다가갈 수도 번역어에 다가갈 수도 있다.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조화로운 ‘중용적 번역’도 가능하다. 번역문법적 성찰을 통한 텍스트 의미의 보다 깊은 이해와 재현은 인문교육으로 이어진다. 번역의 성찰 대상이 인문학 텍스트라면 문화가 텍스트나 낱말 차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53) 이승환(2007): “‘인문(人文)’은 문자적 의미로 본다면 자연에 아로새긴 ‘인간의 무늬’를 말한다(28-9). (...) ‘인간의 무늬’는 철학과 역사, 문학과 예술, 그리고 제도나 문물과 같은 각종 문화적 양식을 통하여 구현된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적 활동들이 얼마나 격조 있고 깊이 있게 ‘인간의 존재의의’를 드러내고 ‘인간다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 활동에 깃든 인문정신의 충차를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30)

54) Buzelin(2004:730-1) 참고.

55) G  mar(1990:255-6) 참고.

살피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언어는 세상에 대한 접근과 타자와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리콥르에게서 번역은 이러한 만남이 ‘언어적 환대’와 ‘더불어 살기’의 윤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계기이다.<sup>56)</sup> 리콥르(2006:88)는 번역가는 자신의 행복’을 ‘언어적 환대’라고 부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두 언어-문화 사이의 ‘중용의 덕’ 추구 또한 하나의 ‘언어적 환대’일 수 있다. 번역의 이러한 인문(학)적 탐구들이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열악한 번역 문화가 크게 개선되는 인문학의 ‘번역적 전환’<sup>57)</sup>도 머지않아 가능해질 것이다.

---

56) Jervolino(2006) 참고.

57) 이는 ‘translative turn’, 혹은 ‘translational turn’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 고영섭(2007): 「인간의,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불교학」, 『문학/사학/철학』, 9, 1-4.
- 고영섭(2009): 「인문학과 인문치료」, 『문학/사학/철학』, 18, 1-3.
- 김륜옥(2001): 「외국어문학과의 번역교육 필요성 및 번역학과 모델 -독어문학을 실례로」, 『독일어문학』, 15, 1-22.
- 김옥동(2002): 『수사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 리쾨르, P. 지음/윤성우 · 이향 옮김(2006): 『번역론 -번역에 관한 철학적 성찰』. 철학과 현실사.
- 마넬리, M. 지음/손장권 · 김상희 옮김(2006): 『페렐만의 신수사학 -새로운 세기의 철학과 방법론』, 고려대 출판부.
- 박경일(2001): 「번역문화 바로 세우기와 영어교육의 근원적 개혁 (1) -하버드에서 가르치지 않는 영어, 한국에서 가르치자」, 『번역학연구』, 2-2, 7-36.
- 박경일(2003): 「영어/번역 어떻게 가르칠까/공부할까? (1) -영어/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탈이론적 방법론 서설」, 『번역학연구』, 4-1, 5-26.
- 박노철(2004): 「영어 교육에 있어서 번역 교육의 필요성 연구」, 『영어교육연구』, 28, 39-73.
- 유명우(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윤성우(2006): “번역(학)과 해석(학) -철학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37, 171-195.
- 손도현(2006): 「인문교양교육의 의미와 과제」, 『인문과학』, 성균관대학교, 37, 203-231.
- 이광호(2006): 「인문학적 비평의 두 열림 -김치수와 김주연 비평의 현재성」, 『문학과 사회』, 19-4(통권 제76호), 440-456.
- 이승환(2007): 「동양의 학문과 인문정신」, 『知平』, 2, 28-44.
- 이완재(1998): 「동양적인 학(學)의 성격」, 『겨레얼』 5, 2-39.
- 장희익(2007): 「인간적 학문 -‘삶 중심’ 학문의 복원을 위하여」, 『知平』, 2, 11-26.
- 전성기(2008): 『번역인문학과 번역비평』, 고려대 출판부.
- 전성기(2009a): 「문학 해석번역론 재해석」, 『불어불문학연구』, 80, 475-499.
- 전성기(2009b): 「탐구번역론 -하나의 인문학 번역론」, 『번역학연구』, 10-2, 133-157.
- 전호근/김시천(2010): 『번역된 철학, 착종된 근대』, 책세상.
- 정명진(1979): 「영어교육과 번역」, 『영어교육』, 18, 163-174.
- 정준영(2001): 「인문학적 탐구로서 서양 고전 번역의 의미 -회람 철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2권 2호, pp. 37-63.
- 정혜용(2007): 「문학번역교육에 관한 소고 -불문학과 번역학의 만남을 위하여」, 『프랑스어문 교육』, 26, 397-410.
- 크로스화이트, J. 지음/오형엽 옮김(2001): 『이성의 수사학 -글쓰기와 논증의 매력』, 고려대

출판부(원본 1996).

한상근 외(2002): 『인문학관련 새로운 직종개발연구』, 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총서 2002-46, 한국교육개발원.

홍성욱(1997): 「잡종, 그 창조적 존재학」, 『창작과 비평』, 371-385.

홍성욱(2000): 「인문학적 사유의 창조성과 ‘실용성’: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 가지 제안」, 『동향과 전망』, 44, 212-231.

홍성욱(2003):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안그라픽스.

Abel, O.(2000): *L'éthique interrogative. Herméneutique et problématique de notre condition langagière*, PUF.

Ancet, J.(1999): “La séparation”, *La traduction-poésie*, à Antoine Berman, Presses Universitaires de Strasbourg, 173-186.

Balliu, C.(2001): “La pédagogie de la traduction”, *Le langage et l'homme*, 36-1, 153-161.

Balliu, C.(2004): “Jean-René Ladmiral: Une certaine philosophie de la traduction”, *Transversalités*, 92, 51-57.

Ballard, M.(2007): “Pour un rééquilibrage épistémologique en traductologie”, *Quo vadis Translatologie?* Frank & Timme, 17-34.

Berman, A.(1984): *L'épreuve de l'étranger*, Gallimard.

Buzelin, H.(2004): “La traductologie, l'ethnographie et la production des connaissances”, *Meta*, 49-4, 729-746.

Cassin, B.(1998): “Explorer les intraduisibles”, *Critique*, Janvier-Février, 608-609, 1114-1116.

Cassin, B. et Briffard, C.(2006): “Le vocabulaire européen des philosophes, Dictionnaire des intraduisibles, Entretien avec Barbara Cassin, réalisé par C. Briffard”, [http://www.revue-texto.net/Dialogues/Cassin\\_interview.html](http://www.revue-texto.net/Dialogues/Cassin_interview.html)

Chevalier, J.-C./ Launay, M./ Molho, M.(1986): “Pour une linguistique du signifiant”, *Cahiers du CRIAR*, 6. 95-99.

Constantinescu, M. (2009): “Les difficultés de traduction des textes de sciences humaines”,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Théorie, pratique et didactique de la traduction spécialisée», Craiova, Roumanie, 28-29, 2009, 142-147.

Davis, A.Y.(1997): “E-prime, delay, and mindfulness”, *Etc*, 54-4, 418-433.

Delisle, J.(1981): “De la théorie à la pédagogie: réflexions méthodologiques”, *L'enseignement de l'interprétation et de la traduction, de la théorie à la pédagogie*, Editions de l'Université d'Ottawa, 135-151.

Durieux, C.(2009): “Vers une théorie décisionnelle de la traduction”, *Revue LISA*, 7-3, 349-367.

- Einhorn, L.(2006): “Using E-Prime and English Minus Absolutismes to Provide Self-Empathy”. *Etc*, 63-2, 180-186.
- Gémar, J.-C.(1990): “La traduction est-elle civilisatrice? Fonctions de la traduction et degrés de civilisation”, *Meta*, 35-1, 247-257.
- Hénaff, M.(2006): “La condition brisée des langues: diversité humaine, altérité et traduction”, *Esprit*, 323, 68-83.
- Hermans, T.(2003): "Cross-cultural Translation Studies as Thick Translation",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66-3, 380-388.
- Hoggard, L./Kratz, D.M.(2008): “Translation Studies as a Transforming Model for the Humanities”, Presentation given at the XVIII FI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ranslators) World Congress in Shanghai, August 4-7, 2008, 1-16.
- Huynh, J.-A.(2009): “De la pertinence de l'argumentation dans la construction d'une culture humaniste au XXIe siècle”, *Le français aujourd'hui*, 2009/4, 167, 53-66.
- Jervolino, D.(2006): “Pour une philosophie de la traduction, à l'école de Ricœur”,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50-2,
- Ladmiral, J.-R.(1984): “Pour la traduction dans l'enseignement des langues: 'version' modernes des Humanités”, *La traduction: de la théorie à la didactique*, Études réunies par M. Ballard,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39-56.
- Ladmiral, J.R.(2000): “Traduire des philosophes”, *Traduire les philosophes*, sous la direction de J. Moutaux et O. Bloch, Publications de la Sorbonne, 49-73.
- Ladmiral, J.R.(2004): “La traduction entre en philosophie”, *La traduction entre philosophie et littérature*, A. Lavieri(éd.), L'Harmattan Italia, 24-65.
- Ladmiral, J.-R.(2005): “Formation des traducteurs et traduction philosophique”, *Meta*, 50-1, 96-106.
- Ladmiral, J.R.(2007): “Didactiques de la traduction”, *Transversalités*, 102, 3-28.
- Ladmiral, J.R.(2009): “Traduction et philosophie”, *Revue Septet*, «Des mots aux actes», 2, 47-70.
- Langsdorf, L.(1997): “Argument as Inquiry in a Postmodern Context”, *Argumentation*, 11, 315-327.
- Lee, I.J.(2005): “When to keep 'still'”, *ETC*, 62-4, 424-428.
- Mejri, S.(2005): “Traduire, c'est gérer un déficit”, *Meta*, 50-1, 120-128.
- Meiland, J.W.(1989): “Argument as Inquiry and Argument as Persuasion”, *Argumentation*, 3-2, 185-196.
- Meyer, M.(1993): *Question de rhétorique : langage \*raison \*séduction*, Librairie Générale.

- Meyer, M.(1996): “Les fondements de l'argumentation”, *Argumentation et questionnement*, C. Hoogaert (dir.), PUF, 13-36.
- Meyer, M.(2005): *Qu'est-ce que l'argumentation?*, Vrin.
- Ost, F.(2006): “Les détours de Babel. La traduction comme paradigme”, *Séminaire*, Calenda, publié le mardi 7 novembre 2006, 1-53.
- Oustinoff, M.(2007): “Les «Translation Studies» et le tournant traductologique”, *Hermès*, 49, 21-28.
- Poncharal, B.(2007): “Le «Social Science Translation Project» et la traduction des sciences humaines”, *Hermès*, 49, 99-106.
- Robitaille, M.(2005): Recension de *L'éthique interrogative. Herméneutique et problématologie de notre condition langagière*. O. Abel(2000, PUF), *Laval théologique et philosophique*, 61-1, 207-218.
- Rochlitz, R.(2001): “Traduire les sciences humaines”, *Raisons politiques*, 2, 65-77.
- Roth, A.(1983): “L'enseignement des langues dans le secondaire et la traduction”, *Meta*, 28-3, 310-315.



■ *Résumé* ■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et enseignement des humanités

JON Sung-Gi

L'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à l'université a besoin d'être reconsidéré en harmonie avec celui des Humanités. Si la traduction est une communication, son enseignement devrait être aussi celui de la communication. Si la langue est inséparable de la culture, son enseignement ne devrait pas être séparé de celui de la culture, d'autant plus que non seulement le lexique mais aussi la grammaire sont des phénomènes culturels. L'appréciation contextuelle de ces éléments sont très importante pour la traduction. L'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allant avec celui des humanités, devrait promouvoir les réflexions sur les humanités et les sciences humaines. Ces réflexions se murissent par la pratique de la "traduction-recherche" qui est un processus d'interaction continuelle de la lecture-interprétation et de la critique de traduction-écriture traductive, qui sont en interaction étroite entre elles. Ce processus de traduction, qui est en grande partie celui de l'argumentation, souvent implicite et peu consciente, devrait donc se nouer à l'enseignement de l'argumentation, qui joue un rôle capital dans les sciences humaines. L'enseignement de la traduction via les textes de sciences humaines peut bien être une occasion de faire comprendre aux étudiants la nécessité de "translation turn" pour les études de sciences humaines en Corée et de développer ce qu'on peut appeler "Translational Humanities", une nouvelle approche des sciences humaines.

주제어 : 번역(traduction), 교육(enseignement), 인문(humanités), 소통(communication),  
논증(argumentation)

논문 투고일: 2011년 4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1년 5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18일